

SK에너지, 중국과 석탄화학 협력

SK에너지(대표 구자영)는 중국의 석탄개발 국영기업인 자오주양그룹과 청정 석탄가스를 개발하는 석탄화학 사업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11월19일 발표했다.

양사는 자오주양그룹이 보유한 석탄자원으로 청정 석탄가스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SK에너지의 석유화학 기술을 응용해 다른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업에서 협력키로 했다.

SK에너지는 질이 낮은 석탄에서 합성가스를 뽑아내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화학제품 등 공해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석탄화학 기술은 현재 남아프리카의 Sasol과 미국의 Dow Chemical 등이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2009년 자오주양그룹의 조경유(경유의 일종), 콜타르를 이용해 방향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합작기업을 설립한 바 있다.

SK에너지는 10월 말 포스코와도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기초 석유화학제품과 고부가 화학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석탄화학 사업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화학저널 2010/12/6〉